

폐쇄 10개월 ‘무안국제공항’ 내년 재개항도 불투명

운영 중단 장기화 여행업계 ‘개점휴업’
사조위 독립성 비판 유족-국토부 교착
12월초 참사 중간조사 결과 발표 주목
도 “원만한 협의 시 내년 상반기 기대”

12·29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무안국제공항 운영 중단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재개항도 장담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말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사고 영향 조사 결과가 정상화의 ‘터닝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사조위 독립성에 대한 유가족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해결책 도출이 재개항 시기를 결정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가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철거 미비 등을 이유로 내년 1월5일까지 지속된다.

무안공항 활주로는 사고 직후 폐쇄돼 지난 1월부터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한 여행상품을 주력으로 개발·판매해온 광주·전남 여행업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름 성수기는 물론, 최장 10일 추석 연휴 등 대



적막한 무안국제공항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참사로 무안국제공항 운영 중단이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재개항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무안국제공항 전경과 텅 빈 탑승 수속 부스.

〈광주매일신문 DB〉

목에 이어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겨울 방학, 설 연휴 관광객 모객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참사 발생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에서야 광주·전남 여행업계 등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홍보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위한 ‘12·29 여객기참사 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나섰다.

그러나 12월 용역 종료까지 여행업체들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전무해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안공항 관련 여행상품을 판매해온 광주·전남 여행사는 약 1천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조속한 무안공항 재개항을 요구해온 전남도는 오는 12월 초로 예정된 사조위의 제주항공 참

사 중간 조사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중간 조사 결과에 참사를 기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이 실제 사고에 미친 영향 분석 용역 결과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유가족이 요구하는 진상 규명 등이 이뤄질 경우 무안공항 재개항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유가족들이 국토부 소속 사조위의 독립성에 의문을 지속 제기하고 있는 만큼 중간 조사 결과 발표가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앞서 지난 7월 유족을 대상으로 열린 사조위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는 ‘참사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몰아간다’는 유족 반발 속에 취소된 바 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도 이달 13일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가인으로 참석해 사조위 조사 중단을 비롯해 사조위의 국무총리실 직속 이관, 비행기록장치(FDR)·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데이터 등 핵심 자료 유가족 공유, 책임자의 증인 출석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답변을 통해 “12월 초로 예정된 제주항공 참사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가능한 한 앞당기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11월10일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진행 상황을 유가족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활주로 연장, 항행 안전 시설 등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에 접어들 만큼 유가족 협의까지 이뤄질 경우 로컬라이저 철거·재설치 공사와 비행 검사 등 행정절차를 서둘러 내년 상반기 재개항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가족이 요구하는 참사 진상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무안공항 정상화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조위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광주·전남 ‘소아 응급환자들’ 갈 곳이 없다

지역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무

중증 소아환자 ‘의료 사각지대’ 방치

전진숙 “의료체계 지역별 편차 심각”

중증 소아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광주와 전남에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

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설치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1곳을 운영 중이다. 서울·인천·경기 각 2곳, 대구·세종·충남·전북·경남 각 1곳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지역내 중증 소아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운 ‘소아의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또한 소아 중증 환자를 전담할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반 응급 의료기관의 24시간 진료 가용성마저 심각하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실제 광주시의 경우 전체 응급의료기관 21곳(권역의료센터 2곳, 지역의료센터 4곳, 지역의료기관 15곳) 중 야간이나 휴일 등 24시간 소아 환자 진료가 불가능한 곳은 10곳(권역센터 1곳, 지역센터 1곳, 지역 의료기관 8곳)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47.6%에 달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할 전문센터가 없는 것과 동시에, 경증·중등증 환자를 돌볼 1차 응급기관마저 절반 가까이가 24시간 진료가 불가능한 의료 혜택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반면, 전남도는 전체 39곳(권역센터 2곳, 지역센터 3곳, 지역 의료기관 33곳)의 응급기관 중 단

1곳(지역 의료기관)을 제외한 38곳(97.4%)이 24시간 환자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1차 진료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하지만 이는 중증을 제외한 일반 환자 진료에 국한된 것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무한 상황에서 중증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전문적인 최종 치료를 제공할 핵심 인프라가 빠져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광주는 1차 진료와 중증 인프라 모두 부족하고 전남은 중증 인프라가 전무한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며 “지역 소아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필수의료의 중요한 한 축인 응급의료분야, 그 중에서도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진료권 중심의 24시간 전문의 대응 체계 및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 협력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응급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야간·휴일에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관련 수가를 인상하는 한편, 중증·응급환자를 전담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등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다층적 진료 협력 체계 구축을 공식화한 바 있다.

/김진수 기자

Today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살인 오명 벗다	6면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경북 청송	14면
손흥민 MLS 데뷔골, ‘올해의 골’ 선정	16면

2025 Gwangju Kimchi Festival

제32회 광주 김치축제

우주초빛 김치파티

2025. 10. 31. (일) - 11. 2. (월)

광주광역시청 광장 일원

자세한 축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스타셰프와 클래식 아이돌의 만남
90분간 펼쳐지는 오감 폭크스
#찰치해제소 #명장의무킹소 #광주김치환상

대한민국명장 안옥성소
feat 클래식합성포니오케스트라

뉴진스님 & 추리랜드 김치파티

김치처럼 강렬하게! K-힙 한가운데로!
#추리랜드 #백프로 #뉴진스님

명인의 시그니처 요리부터, 웨이팅 핫플의 대표메뉴까지
#다이너스티에이치 #감성김치 #김치레스토랑

K컬치+K푸드 전례없는 미식경험 천인의밥상

K푸드의 최전선 김치의 모든것! 김치마켓

#대통령상수상명인김치 #전통시장맛김치 #품질인증명품김치